

#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Financial Program Development for Retirement Preparation

— Focused on Family Life Cycle Stage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및 인간발달학과

교수 文淑才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金純美

Ewha Womans University Consumer Sciences & Human Development

Professor : Sook-Jae Mo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sumer Scienc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or : Soon-Mi Kim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household's financial status by life cycle stage and to analyze contributing factors to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preparation among Korean married couples. For these purposes, 2074 married couples those being under 55 and having either single earner or dual earners were selected, and total sample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young-aged(<35), middle-aged(35-44) & old-aged(45-54). Statistics were frequencies, means, percentile, and logistic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ld-aged had higher level of total income, total expenditure and total assets than either young-aged or middle-aged. In addition, households those holding private pensions were likely to have higher total income,

\* 본 연구는 1996년도 교육부의 지역개발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total expenditure and total assets than those owning no private pension. While middle-aged had a highest total debts. Second, gini coefficients of total income and total expenditure between three aged groups were similar, but old-aged had the highest gini coefficient of total assets and total debts. In particular, gini coefficients of total assets and total debts of households those having no private pension were greater than those holding private pensions. Third, contributing factors to private pension ownership of young-aged were family & household-related factor and financial factor, middle-aged's factors were household head's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factor. Also, old-aged's factors were household head's characteristics, family & household-related factor and financial factor.

## 1. 문제제기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배분의 불평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은퇴기의 재정적 자립에 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1970년의 63.2세에서 1980년의 65.8세, 1990년의 71.3세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인구 중 5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80년의 9.1%에서 1985년의 9.9%, 1990년의 11.4%, 1994년의 13%로 상승하였다(통계청, 1995). 또한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한 노인단독가계는 다른 가족유형보다 소득과 지출면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에서 조사한 60세이상의 노인단독가계 중 월평균소득액이 20만원미만인 가계는 전체가계의 85% 이상이었으며, 50만원이상인 가계는 전체가계의 3%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민재성, 1989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의 연구에서 노인가계의 주소득원 중 자녀의 원조가 63.7%로 나타나 많은 노인가계가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민재성·유일호·최성재·김용하, 1993). 이러한 결과들은 1990년 미국노인의 12.2%가 빈곤선보다 낮은 재정상태에 있다는 National Council on Aging (1992)의 연구결과처럼 우리나라의 노인가계도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Malroux & Xiao,

1995에서 재인용).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가계는 은퇴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재정적 욕구의 증가와 불충분한 재정자원으로 생활수준이 하락하게 되어 빈곤상태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노인가계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의 영위, 그리고 노인가계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준비, 즉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계신자, 1988; 이희숙, 1995).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전략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지만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무계획은 개인이나 가계가 각기 독특한 재정상태에 처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재무계획에 대한 요구는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커지고, 특히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 더욱 확대된다. 축소되거나 은퇴기에는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를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며, 대부분의 개인 및 가계는 은퇴기를 대비하여 자산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Mitra, 1993; Kapoor, Dlabay & Hughes, 1996).

은퇴전의 재무계획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은퇴기에 직면할 재정적 문제나 위기를 예방하며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즉, 미래를 위한 지출과 현재를 위한 지출의 균

형을 위해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유도하고, 미래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처럼 현재의 재정상태와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과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은퇴준비의 미래지향적 특성때문에 현재중심적인 재정상태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축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전 가계의 재정상태와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초점을 두고 그 관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은퇴전 가계의 재정상태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파악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은퇴전 가계가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며,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은퇴준비 및 재무계획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인인구의 비율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증가 및 베이비부머 후세대의 출산을 감소로 기존의 부양체계가 파괴됨에 따라 새로운 재무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애주기가설(Friedman, 1956; Ando & Modigliani, 1963)에 기초를 둔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은퇴후 소득, 은퇴시기의 결정 등과 같은 개인적 관심뿐 아니라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및 개인연금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Katona, 1965; Boskin & Hurd, 1978; Horgarth, 1981; Schultz, 1992에서 재인용). 그러나 재무계획 및 재무상담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매우 적으며, 주로 은퇴계획의 필요성, 은퇴전 계획과 은퇴후 계획, 은퇴자금의 결정요인(Mitra, 1993; Crowe

& Hughes, 1994; Kapoor, Dlabay & Hughes, 1996; Yuh & DeVaney, 1996)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서 노인의 재정적 자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계획 및 은퇴계획도 개인 및 국민전체를 위한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점차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한 가정경제 분야의 연구는 주로 노후대비실태 및 노후대비능력(임정민·손선경, 1985; 김인숙, 1992), 은퇴계획(김순미·양정선, 1994), 재정상태(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등에 대한 연구가 초기적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준비를 하는 개인이나 가계의 일반적 관심은 은퇴자금이나 은퇴후 소득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은퇴후에 저축을 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은퇴전 저축을 통하여 은퇴자금을 준비하게 된다(Koltlikoff, Spivak & Summers, 1982; DeVaney, 1995b). 또 은퇴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은퇴후 소득은 은퇴전 소득의 약 70%정도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퇴전에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확보나 사회보장 및 개인연금의 가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게 된다(Malroux & Xiao, 1995; Yuh & DeVaney, 1996).

은퇴준비는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연령이 적으면 은퇴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무계획이나 투자능력에 영향을 미쳐 은퇴 후에 갖게 될 재정자원이 증가하게 된다(Beck, 1984; Li, Montalto & Geistfeld, 1996). 그러나 때로는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퇴자금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더 많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도 한다(Richardson & Kilty, 1989).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육수준도 은퇴전 준비계획 프로그램의 참여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은퇴전 준비계획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Beck (1984)의 연구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401(k)plan<sup>1)</sup>에 많이 참여한다는 Foster(1996)의 연구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개인의 과거 경제적 경험과 인식은 현재의

재정계획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에 대한 경제적 기대 또한 현재의 재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ira, Fitzsimmons, Hafstrom & Bauer, 1993).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은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지적, 경제적 조건을 갖춘 직업적 지위에 있을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다. Beck(1984)은 은퇴전 준비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적 지위가 낮은 근로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식적으로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Foster(1996)는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전문직업인들이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 저축이나 은퇴계획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가계의 재정자원은 자녀의 교육이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사용되지만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부모의 은퇴저축을 위해 사용되므로 자녀 관련변수 역시 은퇴준비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Malroux & Xiao, 1995). 뿐만 아니라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크기 및 유형은 가족수와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간의 정적 관계를 밝힌 연구들(DeVaney, 1995a; DeVaney, 1995b; Malroux & Xiao, 1995)과 가족크기가 은퇴준비와 부적관계를 갖는다는 연구(Turner, Bailey & Scott, 1994)에 의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 은퇴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의 보유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던 Moon & Kim(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hardson & Kilty(1989)는 가족생활주기나 연령만큼 소득이 재무계획에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Yuh & DeVaney(1996)는 배우자의 은퇴저축이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 부채, 소득 및 주택소유에 관한 계획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가족소득은 401(k)plan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Yuh & DeVaney, 1996), 가입연금수는 순자산의 증가와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Morgan & Juster, 1990). 또한 주택저당액이 완불되면, 가계의 재정자원은 은퇴저축

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소유 여부가 은퇴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ichardson & Kilty, 1989).

## 2. 가계의 재정상태

일반적으로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은 재무계획의 필요성 인식, 미래 노후생활에 대한 재정적 목표 설정과 전망,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수행의 수단계로 이루어지며, 특히 재무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Mittra, 1993; Kapoor, Dlabay & Hughes, 1996).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목적에 따라 적절한 측정지표를 사용해야 한다(Quinn, 1987; Radner, 1992에서 재인용).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소득(Smeeding, 1988; Grad, 1990; Radner, 1987, 1990; 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에서 재인용)으로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지출은 임시적 요인이 있는 현재소득보다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Garner, 1993). 또한 자산이나 부채는 소득과 지출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재정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 사용된다(Hurd, 1987; Radner, 1987, 1990, 1992; Prather, 1990; Shea & Crystal, 1990; Schwenk, 1993; 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에서 재인용). 특히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및 부채액의 관계는 개인 및 가계가 보유하는 순자산을 결정하며, 개인 및 가계의 지불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재정적 복지수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측정은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비교·평가하고 시계열 분석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1)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은퇴소득계획은 크게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공적연금계획(Public pension plans), 고용주연금계획(Employer pension plans), 개인은퇴계획(Personal retirement plans) 및 연금(Annuity)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401(k) plans은 고용주가 고용자의 은퇴소득을 위해 실시하는 고용주연금계획의 한 방법이다(Kapoor, Dlabay & Hughes, 1996).

한편 개인 및 가계집단내의 재정상태와 재정적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집단내부의 불평등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Lorenz곡선과 Gini계수<sup>2)</sup>를 사용한다. Radner(1987)는 5분위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통하여 노인가계의 소득이 비노인가계의 소득보다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고, Wang(1995)은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지출을 이용한 재정상태의 추정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은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이 지출에 비해 불평등한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가계의 소득분포가 비노인가계보다 불평등한 지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이용한 재정상태의 추정에 있어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불평등도가 소득 및 지출의 불평등도에 비해 심했으며, 특히 총부채의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한 재정상태의 분포는 집단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재정상태를 개선하며 나아가 금융정책이나 빈곤선을 책정하는 공공정책 수립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Wang, 1995).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은퇴전 가계의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첫째, 은퇴전 가계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은퇴전 가계의 재정상태 분포는 어떠

한가? 셋째, 은퇴전 가계의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노인가계의 총소득액과 총지출액, 총자산액 및 총부채액 등을 조사하며, 재정상태의 불평등도와 재무계획의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종속변수인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의 대리변수로는 개인연금의 가입여부를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가구주 관련요인<sup>3)</sup>,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 재정 관련요인을 고려하였다. 이때 가구주 관련요인에는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과거 경제경험 및 미래 경제전망을,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는 부부의 취업상태, 자녀수, 가족형태, 거주지역을 사용하였고, 재정 관련요인에는 가계의 근로소득액, 비근로소득액, 총지출액, 금융자산액, 실물자산액 및 총부채액을 포함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2.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4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8,567명을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은퇴전 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료중 부부가 모두 응답한 2,697가계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55세미만<sup>4)</sup>이면서 부부중 1인이상이 취업중인 가계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부부중 1인이상이 취업상태인 가계를 선정한 것은 부부모두가 비취업상태에 있을 때 개인연금의 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최종 표본은 2,074가계였으며, 전체가계의 특성을 가족생활주기<sup>5)</sup>에 따라 형성기 가계, 확대기 가계, 축소기

2) Lorenz곡선은 분위별 누적 가계백분율과 누적 소득백분율간의 함수로 가시적인 불평등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며, Gini계수는 평등선을 나타내는 총삼각면적에 대한 불평등곡선면적의 비를 통하여 가계의 지위불평등도를 나타낸다(박홍립, 1991).

3) 가구주와 배우자의 관련요인간 상관관계가 높았기 때문에 가구주 관련요인만을 연구문제에 포함하였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조사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기준연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b>종속변수</b>	
가계의 연금가입 여부	1=부부중 1인이상 연금가입 0=연금에 가입하지 않음
가계의 가입연금 불입액	가구주의 가입연금 총불입액+주부의 가입연금 총불입액(만원)
<b>가구주관련 요인</b>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1=중졸이하                      2=고졸                      3=대졸이상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가구주의 미래경제전망	1=매우 부정적                  3=보통                      5=매우 긍정적
<b>가족 및 가계관련 요인</b>	
부부의 취업상태	1=맞벌이 가계                  0=홀벌이 가계
자녀수	동거자녀수
가족형태	1=확대가족                      0=핵가족
거주지역	1=서울 및 광역시              0=기타                      3=축소기
가족생활주기	1=형성기                          2=확대기
<b>재정관련 요인</b>	
가계근로소득액	가계의 연간 총근로소득액(만원) (급여소득액+상여금액+자영소득액+부업소득액)
가계비근로소득액	가계의 연간 총비근로소득액(만원) (자산소득액+이전소득액+기타소득액)
가계총지출액	가계의 연간 총지출액(만원)
가계금융자산액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만원) (저축총액+주식보유액+채권보유액+보험불입총액+계불입총액 +사채준 총액)
가계실물자산액	가계의 보유주택가격(만원)
가계총부채액	가계의 부채보유액(만원) (금융기관부채액+사채액+원부 및 외상액)

가계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표본가계의 구성은 형성기 가계의 경우 667가구(32.2%), 확대기 가계는 907가구(43.7%), 축소기 가계는 500가구(24.1%)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취업상태를 보면, 형성기에는 맞벌이가계가 10.5%, 확대기와 축소기에는 각각 17.6%, 22.2%로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맞벌이가 증가하였으며, 가족형태는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핵가족 형태를 나타

냈다. 그러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거주지역은 세 집단 모두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을 살펴 보면, 형성기 가계는 평균 31.4세였으며, 확대기는 38.8세, 축소기는 49.5세를 나타냈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형성기의 경우 고졸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으나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은 가족생활주기가 후기로 갈수록 만족하

5) Smythe(1968)는 가족의 크레딧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를 연령에 따라 35세미만을 형성기, 35-44세를 확대기, 55-64세를 축소기, 그리고 65세이상을 은퇴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때 은퇴기준을 55세로 하였다(Hong & Kim, 1997에서 재인용).

〈표 2〉 가족생활주기별 표본가계의 일반적 특성

범주변수	표본가계		전체가계(2,074)		형성기가계(667)		확대가가계(907)		축소기가계(50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부취업상태	맞벌이가족	341	16.4	70	10.5	160	17.6	111	22.2	
	홀벌이가족	1733	83.6	597	89.5	747	82.4	389	77.8	
가족형태	핵가족	1867	90.0	619	92.8	797	87.9	451	90.2	
	확대가족	207	10.0	48	7.2	110	12.1	49	9.8	
거주지역	서울/광역시	1207	58.2	385	57.7	538	59.3	384	56.8	
	기타	867	41.8	282	42.3	369	40.7	216	43.2	
연속변수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가구주의 연령(세)	38.995	7.229	31.393	2.303	38.816	2.850	49.462	2.858		
가구주의 교육수준(년)	11.778	2.705	12.867	2.079	11.794	2.503	10.416	3.089		
가구주의 과거경제경험(점)	3.164	0.712	3.019	0.728	3.204	0.698	3.284	0.687		
가구주의 미래경제전망(점)	3.076	0.646	3.190	0.626	3.051	0.639	2.970	0.662		
자녀수(명)	1.940	0.821	1.492	0.645	2.007	0.639	2.418	1.000		

였으나 미래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전체가계와 가족생활주기별 가계의 특성 및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가족생활주기별 가계의 재정상태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10분위계수 및 Gini 계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가족생활주기별 가계의 개인연금 가입여부는 부부 중 1인이나 부부 모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이항변수이므로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Log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Logistic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1. 가족생활주기와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가계의 재정상태

연구문제를 분석을 위해 가족생활주기와 연금가입여부에 따라 전체가계를 구분한 결과는 〈표 3〉과 같으

며, 각 가족생활주기별 연금가입 가계의 총연금불입액은 형성기 가계가 평균 93만원, 확대기 가계와 축소기 가계는 각각 154만원, 212만원을 보유함으로써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가족생활주기별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액, 비근로소득액, 총소득액, 총지출액, 총금융자산액, 총실물자산액, 총자산액, 총부채액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형성기 가계중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평균 총소득액은 2,313만원이었으며,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평균 총소득액은 1,900만원이었다. 또 확대기의 경우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평균 총소득액은 2,607만원인 반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경우는 2,036만원이었고, 축소기에서도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평균 총소득액은 2,762만원,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는 2,055만원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총소득액의 증가추세를 볼 수 있으며,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소득액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소득을 구성하는 근로소득액은 총소득액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비근로소득액은 연금가입을 한 확대기 가계가 가장 높은 비근로소득을,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확대기 가계가 가장 낮은 비근로소득액을 나타냈

〈표 3〉 가족생활주기 및 연금가입여부에 따른 표본가계의 구성과 총연금불입액

표본가계	형성기가계(667)		확대가가계(907)		축소기가계(500)		전체가계(2,074)	
	가입	비가입	가입	비가입	가입	비가입	가입	비가입
빈도	158	509	214	693	86	414	458	1616
(%)	(23.69)	(76.31)	(23.59)	(76.41)	(17.20)	(82.80)	(22.08)	(77.92)
총연금불입액(만원)	92.97	-----	153.50	-----	212.27	-----	143.65	-----

다. 총지출액에 있어서도 연금가입을 한 가계가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높았으며,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과 총지출액이 증가하는 도시가계연보(1995)의 결과와 유사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액과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총자산액의 구성에 있어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금융자산액은 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성기에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다. 점차 증가하여 확대기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축소기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총부채액의 경우, 형

〈표 4〉 가족생활주기의 연금가입여부별 가계의 재정상태

(단위: 만원)

표본가계 가계재정상태	형성기가계(667)		확대가가계(907)		축소기가계(500)	
	가입(158)	비가입(509)	가입(214)	비가입(693)	가입(86)	비가입(414)
근로소득액	2004.72	1676.20	2093.61	1804.49	2362.86	1805.95
비근로소득액	307.89	233.68	513.80	231.82	399.28	248.63
총소득액	2312.61	1899.88	2607.42	2036.30	2762.14	2054.58
총지출액	1218.46	1052.70	1493.27	1300.71	1691.72	1309.94
총금융자산액	938.92	603.78	1094.86	781.81	1048.90	648.54
총실물자산액	3656.62	3219.84	6133.32	5329.34	9729.38	6614.03
총자산액	4433.54	3703.43	6970.24	6026.55	10550.06	7182.69
총부채액	488.25	308.72	738.21	412.05	542.03	382.37

한편 형성기 가계 중 연금가입을 한 가계는 평균 4,434만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가계의 총자산액은 3,703만원이었다. 또 확대기 가계의 경우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자산액은 6,970만원인 반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총자산액은 6,027만원이었다. 축소기 가계에서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자산액이 10,550만원,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는 7,183만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총자산액의 증가추세를 볼 수 있으며,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자산액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자산을 구성하는 실물자산액은 총자산

성기 가계 중 연금가입을 한 가계는 평균 488만원이었으며, 확대기 가계의 경우에는 738만원, 축소기 가계는 542만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형성기 가계의 총부채액은 309만원이었으며, 확대기 가계는 412만원, 축소기 가계는 382만원의 총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다.

## 2. 가족생활주기별 가계의 재정상태 불평등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표본가계의 재정상태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형성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표 5〉를 보면, 총소득의 경

우, 연금가입을 한 가계와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가 각각 21.1%, 21.5%, 최하위가 4.4%, 4.1%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총소득분포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총지출에 있어서도 연금가입을 한 가계와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가 각각 19.6%, 19.4%, 최하위 10%가 각각 4.3%, 4.4%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총지출도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의 분포는 총지출보다 불평등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자산과 총부채의 Gini계수는 각각 0.376과 0.734로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0.424와 0.820에 비해 낮았으며, 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총부채는 총자산보다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6〉은 확대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총소득을 살펴 보면, 연금가입을 한 가계와 연금

〈표 5〉 형성기 가계의 10분위 재정상태 분포 및 Gini계수

분위	재정상태		총소득		총지출		총자산		총부채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1분위	0.044	0.041	0.043	0.044	0.017	0.014	0.000	0.000		
2분위	0.101	0.102	0.102	0.102	0.056	0.058	0.000	0.000		
3분위	0.167	0.168	0.171	0.171	0.103	0.102	0.000	0.000		
4분위	0.242	0.243	0.248	0.250	0.166	0.158	0.000	0.000		
5분위	0.322	0.326	0.335	0.340	0.239	0.226	0.004	0.000		
6분위	0.411	0.418	0.432	0.439	0.326	0.308	0.041	0.002		
7분위	0.516	0.521	0.532	0.552	0.431	0.408	0.120	0.019		
8분위	0.640	0.642	0.658	0.668	0.562	0.533	0.251	0.121		
9분위	0.789	0.785	0.804	0.806	0.731	0.709	0.488	0.368		
10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Gini계수	0.254	0.255	0.235	0.228	0.376	0.424	0.734	0.820		

반면, 총자산은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가 각각 26.9%, 1.7%,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와 최하위 10%가 29.1%, 1.4%로 분포되어 있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총자산이 연금가입을 한 가계에 비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총부채에 있어서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최상위 10%는 51.2%, 최하위 60%는 단지 4.1%의 부채를 보유하고,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는 63.2%, 최하위 60%는 0.2%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두 집단 모두 심한 불평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가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Gini계수를 살펴 보면,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소득과 총지출의 Gini계수는 각각 0.254와 0.235로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0.235와 0.228에 비해 약간 높았고, 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총소득

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가 각각 22.8%, 22.7%, 최하위가 3.5%, 3.7%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포되어 집단간의 불평등도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지출에 있어서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와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가 18.6%, 20.3%, 최하위 10%가 4.5%, 3.9%의 지출을 하고 있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총지출이 연금가입을 한 가계에 비해 약간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자산에 있어서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가 각각 32.8%, 1.4%,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와 최하위 10%가 33.6%, 1.2%로 분포되어 있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가 연금가입을 한 가계에 비해 불평등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총부채에서도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최상위 10%는 49.3%, 최하위 60%는 5.0%의 부채를 보유

〈표 6〉 확대기가계의 10분위 재정상태 분포 및 Gini계수

재정상태 분위	총소득		총지출		총자산		총부채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1분위	0.035	0.037	0.045	0.039	0.014	0.012	0.000	0.000
2분위	0.086	0.091	0.107	0.099	0.040	0.037	0.000	0.000
3분위	0.149	0.154	0.177	0.169	0.077	0.074	0.000	0.000
4분위	0.217	0.229	0.256	0.249	0.129	0.123	0.000	0.000
5분위	0.296	0.314	0.344	0.340	0.192	0.185	0.006	0.000
6분위	0.383	0.404	0.442	0.431	0.271	0.266	0.050	0.004
7분위	0.486	0.509	0.556	0.535	0.375	0.365	0.144	0.044
8분위	0.611	0.627	0.674	0.659	0.501	0.493	0.281	0.161
9분위	0.772	0.773	0.814	0.797	0.672	0.664	0.507	0.398
10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Gini계수	0.287	0.275	0.217	0.238	0.441	0.460	0.718	0.799

하였고,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는 60.2%, 최하위 60%는 0.4%로 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심한 불평등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가 불평등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Gini계수에 있어서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소득과 총지출의 Gini계수가 각각 0.287과 0.217였고,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Gini계수는 0.275와 0.238였다. 즉, 총소득은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연금가입을 한 가계가 불평등한 분포를 보인 반면, 총지출은 반대현상을 보였다. 총자산과 총부채의 Gini계수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가 각각 0.441과 0.718로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0.460과 0.799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총자산과 총부채의 불평등도를 비교해 볼 때, 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불평등한 분포를 보였다.

축소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살펴 보면 〈표 7〉과 같다. 총소득은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최상위 10%가 21.9%, 최하위 10%가 3.8%로 분포되었으며,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는 23.8%, 최하위 10%는 1.9%로 나타나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총소득이 연금가입을 한 가계보다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총지출에서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와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가 각각 19.6%, 20.2%, 최하위가 4.3%, 3.2%로 분포되

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총지출이 연금가입을 한 가계에 비해 약간 불평등한 분포를 보였다.

총자산에서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가 각각 20.7%, 1.3%,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가 24.7%, 0.6%를 보유하고 있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가 연금가입을 한 가계에 비해 불평등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총부채에서도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최상위 10%는 57.6%, 최하위 60%는 단지 1.8%의 부채를 보유하고,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최상위 10%는 69.0%, 최하위 60%는 전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두 집단 모두 심한 불평등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불평등도가 연금가입을 한 가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소득과 총지출의 Gini계수는 각각 0.246과 0.227로,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Gini계수인 0.325와 0.253에 비해 낮았다. 또한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자산과 총부채의 Gini계수는 각각 0.413과 0.781로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0.461과 0.839에 비해 낮았으며, 두 집단의 총자산과 총부채의 불평등도를 비교할 때, 총부채의 Gini계수가 총자산보다 높아 불평등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가족생활주기별로 요약하면, 연금

〈표 7〉 축소기가계의 10분위 재정상태 분포 및 Gini계수

재정상태 분위	총소득		총지출		총자산		총부채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연금가입	비가입
1분위	0.038	0.019	0.043	0.032	0.013	0.006	0.000	0.000
2분위	0.093	0.062	0.099	0.087	0.041	0.080	0.000	0.000
3분위	0.158	0.120	0.167	0.156	0.086	0.115	0.000	0.000
4분위	0.234	0.191	0.230	0.236	0.138	0.164	0.000	0.000
5분위	0.319	0.274	0.326	0.326	0.199	0.230	0.002	0.000
6분위	0.411	0.368	0.428	0.416	0.277	0.316	0.018	0.000
7분위	0.518	0.480	0.536	0.526	0.390	0.424	0.730	0.016
8분위	0.640	0.608	0.665	0.658	0.532	0.566	0.196	0.106
9분위	0.781	0.762	0.804	0.798	0.730	0.753	0.424	0.310
10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Gini계수	0.246	0.325	0.227	0.253	0.413	0.461	0.781	0.839

가입을 한 가계의 총소득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약간 불평등이 심해지다가 다시 완화된 반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는 점차 불평등이 심해져서 축소기 가계에서는 가장 심한 불평등 분포를 보였다. 또한 총지출에 있어서 연금가입을 한 가계는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다시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는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져서 축소기 가계에서 가장 심한 불평등 분포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확대기이후의 가계에서는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총지출 불평등도는 높았지만, 형성기 가계에서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총지출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총자산의 분포는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경우 불평등이 심화되다가 완화된 반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총자산은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총자산 불평등도는 연금가입을 한 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부채는 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기 가계에서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가 다시 축소기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상에서 총자산과 총부채의 분포는 총소득과 총지출의 분포에 비해 심한 불평등 분포를 나타내며, 연금가입을 한 가계보다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가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생활주기별로 가계의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가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형성기 가계의 경우, 가구주 관련요인은 연금가입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연금가입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계는 연금가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의 정적 영향은, 거주지역이 개인연금 보유여부와 불입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Moon & Kim(1997)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재정 관련요인에 있어서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할수록 연금가입을 적게 하여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 은퇴준비의 필요를 적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확대기 가계의 경우, 가구주 관련요인에서는 연령 및 과거 경제에 대한 경험이 연금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표 8〉 가족생활주기별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한 Logistic 분석 결과

변 수	표본가계		형성기가가계(667)		확대가가계(907)		축소기가가계(500)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가구주 연령	-0.005	0.048	0.079*	0.032	0.036	0.046		
가구주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0.380	0.267	0.171	0.204	-0.581*	0.301		
대졸이상	0.144	0.294	-0.239	0.245	-0.292	0.423		
가구주의 과거 경제경험	-0.094	0.147	-0.272*	0.128	0.015	0.203		
가구주의 미래 경제전망	-0.186	0.173	-0.079	0.143	-0.350	0.218		
부부취업상태(맞벌이가계)	-0.202	0.307	0.158	0.231	-0.521	0.306		
자녀수	-0.358*	0.171	0.208	0.144	0.384*	0.154		
가족형태(확대가족)	-0.146	0.366	0.526	0.291	1.267*	0.641		
거주지역(서울/광역시)	0.564*	0.224	0.262	0.183	0.297	0.300		
가계근로소득액	-0.00023	0.0001	-0.00013	0.0001	-0.00031*	0.0002		
가계비근로소득액	0.00001	0.0002	-0.00028**	0.0001	-9.35E-6	0.0001		
가계총지출액	-0.00032	0.0002	-0.00029*	0.0001	-0.00042	0.0002		
가계금융자산액	-0.0004**	0.0001	-0.00015*	0.0001	-0.00009	0.0001		
가계실물자산액	-0.00001	0.0000	6.61E-7	0.0000	-0.00004*	0.0000		
가계총부채액	-0.00012	0.0001	-0.00025**	0.0001	-7.56E-6	0.0001		
상수	3.549		-0.313		1.888			
-2 Log Likelihood	648.964***		887.016***		394.107***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록, 그리고 과거 경제에 대해 불만족한 경험을 한 가계는 연금가입을 더 많이 함으로써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시기보다 15년 전에 은퇴준비에 대한 예상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Kilty & Behling (198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정 관련요인에 있어서는 가계의 비근로소득액, 총지출액, 금융자산액 등이 부적 영향을 미쳐, 비근로소득액이 적을수록, 총지출액이 적을수록, 금융자산의 보유액이 적을수록 연금가입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은 연금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축소기 가계의 경우, 가구주 관련요인에서는 교육수준이 부적 영향을 미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가계보다 고졸인 가계에서 개인연금을 적게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직

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층에서, 교육수준이 낮으면 직업지위도 낮아 은퇴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 있어서는 자녀수와 가족형태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확대가족의 경우 연금가입의 가능성이 높아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은퇴후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은퇴준비를 고려한다는 Malroux & Xiao(199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 관련요인에 있어서는 가계의 근로소득, 실물자산 등이 부적 영향을 미쳐, 근로소득액이 적을수록, 실물자산의 보유액이 적을수록 연금

가입의 가능성이 높아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연금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형성기 가계의 경우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과 재정 관련요인이, 확대기 가계에서는 가구주 관련요인과 재정 관련요인, 그리고 축소기 가계에서는 가구주 관련요인, 가구 및 가족 관련요인, 재정 관련요인으로 나타나 가족생활주기별로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며, 특히 자녀수 변수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부적 혹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은퇴전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평균 총소득액, 평균 총지출액 및 평균 총자산액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연금가입을 한 가계의 평균 총소득액, 평균 총지출액 및 평균 총자산액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보다 높았다. 그러나 평균 총부채액은 확대기 가계가 연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또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재정상태가 낮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무설계사 및 상담자는 재정상태가 낮은 개인이나 가계가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선호에 따라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나아가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재무관리 및 재무교육 내용을 포함한 재무계획 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소득과 총지출의 분포는 가족생활주기와 연금가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총자산과 총부채는 가족생활주기와 연금가입 여부에 따라 불평등 분포의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액과 총부채액은 연금가입을 한 가계에 비해 심한 불평등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가계의 평균 총자산액과 총부채액이 낮은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은퇴자금에 중요한 구성요인이 순자산임을 고려해 볼 때, 가족생활주기와 연금가입 여부에 따른 총자산과 총부채의 각 분위별 재정상태에 기초하여 개인이나 가계의 자산관리 및 부채관리를 포함한 재무계획 프로그램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의 대리변수인 연금가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가족생활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준비를 위해 가족생활주기별 영향요인을 고려한 재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형성기 가계는 자녀수 및 거주지역, 확대기 가계는 가구주의 경제적 인식 및 연령, 축소기 가계는 교육수준이나 자녀수, 가족형태 등을 고려한 재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재무계획에 대한 자녀수의 부적 또는 정적 효과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기인한 것인지 자녀수에 대한 부담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관련요인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은퇴준비 재무계획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계획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은퇴전 가계의 재정상태와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의 분석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은퇴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했고, 또 가족생활주기별 분석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의 진행과정에서 가구주의 성별변화, 가족수나 가족유형 등과 같이 가족특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것 외에 은퇴 후 기대하는 연금액에 대한 후속연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재무설계자 및 재무상담자의 은퇴준비 재무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금융기관이 은퇴준비 상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수립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계선자, 기혼여성의 노후생활계획행동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1988, 27. 117-150.
- 2) 김순미 · 양정선,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 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1994, 45-54.
- 3) 김인숙,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4) 문숙재 · 김순미 · 김연경,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6, 14(3). 223-235.
- 5) 민재성,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과제. 노인생활. 1989, 24-29.
- 6) 민재성 · 유일호 · 최성재 · 김용하,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
- 7) 박홍립, 미시경제학. 서울: 박영사. 1991.
- 8) 이희숙, 일하는 기간동안의 가계저축형태와 은퇴 후 가계소비형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95, 6(1). 41-56.
- 9) 임정빈 · 손선경,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5, 3(1).
- 10)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5.
- 1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 12) Beck, S.H.,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Differentials in opportunities and use. *Journal of Gerontology*. 1984, 39. 596-602.
- 13) Crowe, R.M. & Hughes, C.E., *Fundamentals of financial planning*(2nd ed.). Bryn Mawr, PA. 1994.
- 14) DeVaney, S.A., Confidence in financially secure retirement: Differences between retirees and non-retirees. *Consumer Interests Annual*. 1995a, 41. 42-49.
- 15) DeVaney, S.A., Retirement preparation of older and younger baby boomers. *FCP*. 1995b, 6. 25-33.
- 16) Foster, A.C., Employee participation in savings and thrift plans. *Monthly Labor Review*. 1996, March. 17-22.
- 17) Garner, I.T., Consumer expenditures and inequality: An analysis based on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3, 54. 306-316.
- 18) Hira, J.L., Fitzsimmons, V.S., Hafstrom, J.L. & Bauer, J.W.,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993, 14(3). 237-256.
- 19) Hong, G.S. & Kim, S.M., Indebted Households in Korea: A Study of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debts. *Proceedings of the 2nd ACFEA*. Mohamed Abdel-Ghany(ed.). 1997, 139-147.
- 20) Kapoor, J.R., Dlabay, L.R. & Hughes, R.J., *Personal Finance*(4th ed.). Irwin, Chicago : IL. 1996.
- 21) Kilty, K.M. & Behling, J.H.,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1986, 26(5). 525-530.
- 22) Koltikoff, L.J., Spivak, A. & Summers, L., The adequacy of sav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1982, 72. 1056-1069.
- 23) Li, J., Montalto, C.P. & Geistfeld, L.V., Determinants of Financial Adequacy for Retirement. 1996, *FCP*. 7. 39-48.
- 24) Malroux, Y.L. & Xiao, J.J.,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CP*. 1995, 6. 17-24.
- 25) Mitra, S., *Practicing Financial Planning*. Mitra : MI. 1993.
- 26) Moon, S.J. & Kim, Y.J., Private Pension Holdings for Retirement Preparation among Korean Households. *Proceedings of the 2nd ACFEA*. Mohamed

- Abdel-Ghany(ed.). 1997, 209-211.
- 26) Morgan, J.N. & Juster, F.T., The saving behavior of American families; 1984-1989. *Proceedings of the 36th ACCI*. 1990, 36. 289-304.
- 27) Radner, D.B., Money Income of Aged and Nonaged Family Units; 1967-1984. *Social Security Bulletin*. 1987, 50(8). 9-28.
- 28) Radner, D.B.,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Social Security Bulletin*. 1992, 55(3). 3-23.
- 29) Richardson, V. & Kilty, K.M.,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black professionals. *The Gerontologist*. 1989, 29(1). 32-37.
- 30) Schutz, J.H., *The Economics of Aging*(5th ed). Auburn House. 1992.
- 31) Turner, M.J., Bailey, W.C. & Scott, J.P.,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retirement planning among midlife university employee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94, 13(2). 143-156.
- 32) Wang, H., Income & Expenditure Inequality of Elderly Households; An Analysis Using The Gini Coefficient. *FERM Biennial*. 1995, 179-184.
- 33) Yuh, Y. & DeVaney, S.A., Determinants of Couple's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Funds. 1996, *FCP*. 7. 31-39.